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액보험 투자 정보 가이드

변액보험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펀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카디프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금융시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변액보험을 관리해보세요!

CARDIF GUIDE <2017.12>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 본 자료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제공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및 투자결과에 대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5661호(2017. 12. 8)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 자산 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 필요

글로벌 자산군 선호도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01

국내 주식

IT 업종 중심의 실적 개선은 긍정적이거나 차익실현 욕구 등으로 주가 상단 제한 가능

- 단기: 이머징에 대한 투자심리가 견조한 가운데 IT 중심의 실적 호조 지속은 긍정적. 다만 차익 실현 욕구 및 원화 강제 부담 등이 맞물리며 주가 상단 제한 가능
- 중기: 증시 상승세를 주도해 왔던 IT 업종의 실적 개선 흐름 지속 여부에 주목.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 필요

02

국내 채권

기준금리 인상 신호에 부진하나, 급등세는 다소 진정될 전망

- 단기: 인상 소수의견 등장과 대내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및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향 등을 감안하면, 국내 통화정책도 정상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12월 채권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향후 통화긴축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으로 제한적 강세 예상
- 중기: 올해 4분기 급격한 채권시장 약세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을 상당 부분 선반영한 가운데, 한은 총재 변경과 지방선거 등의 이슈로 국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지연 예상.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채권시장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전망

03

선진국 주식

미국은 정책 여건이 다소 부담, 유럽은 견조한 경기 흐름에 상대적 강세 전망

- 미국: 실물지표 중심으로 경기 흐름 양호, 고용, 자산 가격은 연말 쇼핑시즌에 우호적. 세계 개편이 지연된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정책 여건이 다소 부담
- 유럽: 독일 주도의 경기 오름세 확인. 선행지수 상승, 성장을 컨센서스 상향 조정 긍정적. ECB의 완만한 QE Tapering으로 할인율 부담 제한적. 정치 불확실성 부상은 불안 요인

04

신흥국 주식

이머징 위험 자산의 완만한 상승 전망

- 인도: 경제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정부의 개혁 노력이 구체화되는 점 긍정적. 위험 자산 선호심리 확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중기적으로 주가지수 추가 상승 압력 전망. 다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서 인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 중국 경기 및 물가는 개선 흐름. 이에 중국 기업들의 실적 확대되며 주가지수 완만한 상승 이어질 것으로 판단.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2기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긍정적

05

해외 채권

경기지표 개선 및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채권시장 약세 압력

- 단기: 기준금리 인상에 통화정책 정상화 반영하며 시장 금리 오름세 예상. 경기 여건 개선 및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역시 채권시장에 부정적
- 중기: 연준의 자산재투자 종료 및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채권시장 약세 압력. 다만 경기 및 물가 둔화 나타날 경우 정상화 속도 늦어질 수 있어 약세폭은 가파르지 않을 전망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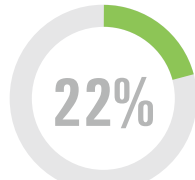
원자재

원유는 수요 개선 전망에 초과 공급 우려 완화, 금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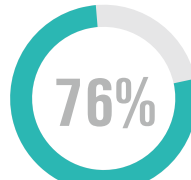
- 유가: 60달러를 넘기에는 미국 셰일오일 생산 확대 우려 상존. 11월 들어 미국 원유 시추공 수와 생산량은 재차 늘어나고 있으며, IEA가 11월 보고서에서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한 점은 부담
- 금: 독일 정치 불확실성 부상과 이탈리아 총선, 미국 세계 개편 관련 잡음 등 불안 요인이 가격 하단 지지하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계감이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

안정추구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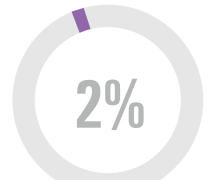
투자손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그래도 자산 중 일부는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마음은 필요합니다.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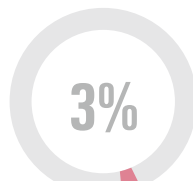
유동성자산

위험중립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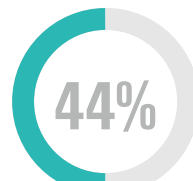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자세를 갖고 있는 고객입니다. 고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적절한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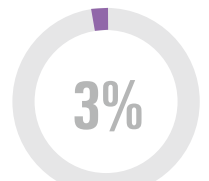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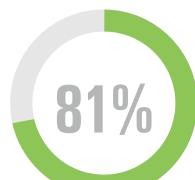
국내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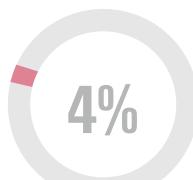
유동성자산

성장추구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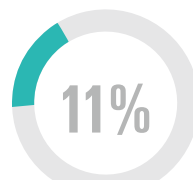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고객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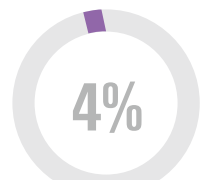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국내채권형



유동성자산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국내	주식	+	이머징에 대한 투자심리 견조한 가운데 IT 중심의 실적 호조 지속은 긍정적. 다만 차익 실현 욕구 및 원화 강세 부담 등이 맞물리며 추가 상승 제한 가능	증시 상승세를 주도해 왔던 IT 업종의 실적 개선 흐름 지속 여부 주목.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 필요
	채권	=	1) 인상 소수의견 등장과 2) 대내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및 3)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향 등을 감안하면, 국내 통화정책도 정상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11월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여겨지나, 국내 경기와 물가의 하방 Risk 상존한다는 점에서 내년 1분기까지 총 금리인상 횟수는 1차례에 그칠 전망이다. 12월 채권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향후 통화긴축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으로 제한적 강세 예상	올해 4분기 급격한 채권시장 약세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을 상당부분 선반영한 가운데, 한은 총재 변경과 지방선거 등의 이슈로 국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지연 예상.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채권시장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다만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 확인 등으로 한은의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3분기를 앞두고 점차 채권수익률의 상승세가 재개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채권시장은 전강후약 장세 예상
해외선진	미국	=	실물지표 중심으로 경기 흐름 양호. 고용, 자산 가격은 연말 소풍시즌에 우호적. 세계개편 지연된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정책 여건이 다소 부담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더해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할인율 상승이 밸류에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여타 선진국 대비 오름폭 제한될 전망이다
	유럽	+	독일 주도의 경기 오름세 확인. 선행지수 상승, 성장률 컨센서스 상향 조정 긍정적. ECB의 완만한 QE Tapering으로 할인율 부담 제한적. 정치 불확실성 부상은 불안 요인	독일 정부 구성과 내년 봄 이탈리아 총선은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양호한 경기와 유로화 강세 완화,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 등을 고려 시 선진 증시 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 기대
	일본	+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기업 이익 전망 개선 흐름 연장.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고려 시 환율 역시 증시에 긍정적 영향 예상	단기 오름세가 가팔랐던 부담과 북한 관련 리스크는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하나 선진국 내에서 양호한 이익 모멘텀과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 등 고려 시 일본증시 추가 상승 기대 유효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해외이머징	브라질	+	브라질 경기 회복과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지속은 긍정적.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 영향으로 주가 조정 받았으나, 이는 밸류에이션 부담 낮춰 긍정적	글로벌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에 브라질 기업들은 실적 개선 보이며 주가지수 완만한 우상향 흐름 보일 전망. 높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이나, 2018년 브라질의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고려하면 주가지수 상승세 이어질 전망
	러시아	=	WTI 가격이 60달러를 상회하는 오름세 보일 가능성 낮은 가운데 러시아 RTS 지수도 제한적으로 움직일 전망.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 확대는 긍정적으로 작용	글로벌 유가상단 제한된 가운데, 기업 이익 회복세도 둔화되며 주가지수 큰 폭의 상승은 쉽지 않을 전망. 다만 신흥국 밸류에이션 과정에서 투자 매력도는 지수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
	인도	+	글로벌 경기 개선과 함께 신흥국 중심의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 2018년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인도 주가지수 상승세 지속될 전망.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 확대와 12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부담	경제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정부의 개혁 노력이 구체화되는 점 긍정적.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증가적으로 주가지수 추가 상승 압력 전망. 다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인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아세안	+	글로벌 경기 개선에 위험자산 선호심리 높아지며 아세안 주식시장 밸류에이션도 이어질 전망. 다만 아세안 시장이 달러화 움직임에 다소 민감한 가운데, 연준의 긴축 지속은 부담 요인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세 및 원자재 수입 증가, 이에 따른 수출 증가 영향으로 기업 실적 호조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 다만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따른 대외 리스크는 부정적
해외이머징	중국	+	중국 경기 및 물가는 완만한 개선 흐름. 이에 중국 기업들의 실적 확대되며 주가지수 상승 이어질 것으로 판단.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2기 정책이 점차 구체화될 것이라 전망도 시장에 긍정적	중국 및 글로벌 경기 개선과 이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우호적. 위험자산 선호심리에 중국 본토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 지속될 전망. 다만, 중국 정부의 공급측 개혁 및 금융시장 규제에 대한 우려는 지수 상단을 다소 제한할 전망
	홍콩	+	중국 경제 및 주식시장 호조에 홍콩 주식시장도 완만한 상승 전망. 다만 글로벌 국제 장기물 금리 상승세의 둔화는 홍콩에서 비중 큰 은행업종의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	중국 본토 주식시장의 우호적 환경에 동반 오름세 기대되나, 중국 19차 당대회 이후 금융시장 규제 강화 가능성은 부담
해외채권	채권	-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통화정책 정상화 반영하며 시장 금리 오름세 예상. 경기 여건 개선 및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역시 채권시장에 부정적	연준의 자산채투자 종료 및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채권시장 약세 압력. 다만 경기 및 물가 둔화 나타날 경우 정상화 속도 늦어질 수 있어 약세폭은 가파르지 않을 전망
대체투자	유가	=	60달러를 넘기에는 미국 셰일오일 생산 확대 우려 상존. 11월 들어 미국 원유 시추공 수와 생산량은 차차 늘어나고 있으며, IEA가 11월 보고서에서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한 점은 부담	OPEC의 생산 조절 노력과 수요 증가 전망은 긍정적이나 미국 생산 확대 부담이 유가 상단을 제한하는 흐름 연장 가능. 60달러 상회 가능성 낮은 것으로 판단
	금	=	독일 정치 불확실성 부상과 이탈리아 총선, 미국 세제 개편 관련 잡음 등 불안 요인이 가격 하단 지지하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계감이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반등 과정에서 헤지 수요 유입 가능. 금 가격 제한적 등락 흐름 예상

EUROSTOXX50 지수

독일의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8% 상승하며, 시장예상치인 2.3%를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11월 ZEW 경기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개선되었으며, ZEW 경기기대지수 또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독일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진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로화는 독일 경제지표 호조와 달러약세에 힘입어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HSCEI / HSI 지수

10월 고정자산투자 및 산업생산은 각각 7.3%, 6.2%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기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및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기 지도부 확정에 따라 내년 재정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송안신구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에 고정자산투자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공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어려운 용어... 한숨 쉬지 말고, 쉽게 알아보아요!

밸류에이션(Valuation)?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평가 가치를 이야기하며, 주식의 경우 PER(주가-순이익 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가치 비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산업 군 안에서도 순이익 규모나 순자산 가치에 비하여 특정 주식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E(Quantitative easing Tapering)? QE는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여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되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며,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원화 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Tapering)?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으로, 출구전략의 일종입니다.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최초 사용한 것으로, 같은 긴축이면서도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타이트닝(tightening)'과 달리 양적완화 정책 속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자료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ELS 변액보험 상품 및 ELS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주식회사 두물머리에서 운영하는 ELS리서치 (<http://elsresearch.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목표에 기반한 투자 – Goal based investing

목표에 기반한 투자(Goal based investing)

목표에 기반한 투자는 각 개인의 삶의 목표와 미래의 예상되는 지출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각자의 나이와 인생의 지향점이 다른 것과 같이 투자목표는 투자자마다 차이가 있고, 또 한명의 투자자가 여러 투자목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짧게는 여행자금 마련, 자동차 구매 자금 마련, 교육 자금 마련 등의 목표가 있을 수 있고, 은퇴 자금 마련과 같이 아주 긴 기간의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별 투자목표의 예시]

- 단기 투자목표(2-3년) : 가족과의 여행 자금, 신용카드 부채 상환, 여유 생활자금 마련 등
- 중기 투자목표(3-10년) : 자동차 구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창업자금 마련, 대학 등록금 마련 등
- 장기 투자목표(10년 이상) : 은퇴자금 마련 등

각각의 투자 목표는 미래의 필요한 자금을 미리 가능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구체적인 투자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는 유인이 되고, 투자기간별로 적절한 목표 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자금 계획의 경우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전하게 목표한 자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보다 장기적인 자금 계획의 경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기반한 투자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연금과 같은 기관들 또한 미래의 지급해야 할 부채인 연금의 조달이라는 구체적인 투자 목표에 기반하여 자금을 운용합니다. 다만, 개인과의 차이점은 한 개인이 단일의 투자목표가 아닌 여러 가지 투자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마코위츠(Markowitz)의 현대재무이론(Modern Portfolio Theory)과 같은 전통적인 재무이론에 따르면 한 개인의 위험대비 수익률과 효용을 극대화하는 단일의 투자 포트폴리오만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금을 미리 꼬리표를 달아 놓는 것을 심리적 회계(Mental accounting)라고 하여 개인의 투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중 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각 개인의 투자 심리 및 행태까지 고려한다면, 목표에 기반한 투자가 이론적으로 최적화된 투자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적의 투자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에 기반한 투자에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는 투자 및 저축에 대한 보다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입니다. 머리 속에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는 심리적으로 동기를 부여하여 중간에 저축을 포기하는 확률을 줄여줄 것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투자목표는 명확한 투자기간과 미래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후 자녀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3,000만원이 필요"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저축액과 목표수익률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예를 바탕으로 하면 5년 후 3,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월 45만원씩 목표수익률 5%의 자산에 투자"와 같은 자금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각 투자목표에 설정된 목표수익률은 보다 현실적인 비교 수익률이 됩니다.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장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 투자한다면 KOSPI 대비 몇 %나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느냐가 주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자산관리에 있어 KOSPI가 20% 하락했을 때 내가 가진 주식, 펀드는 18%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최초로 목표로 했던 수익률 달성 여부입니다. 목표에 기반한 투자는 각 투자 목표별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게 되고, 성공적인 투자 결과의 평가 척도에 있어 KOSPI와 같은 시장 지수가 아닌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익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립식, 자동이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혹은 매분기 필요한 저축액이 설정되어 있으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및 적립식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자동화를 통해 펀드 및 주식 등의 쉽게 매수를 할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코스트 에버리징(Cost averaging)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각 투자기간에 맞는 최적의 자산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목표 별로 설정한 투자기간을 바탕으로 자금 별 적절한 위험을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된 위험과 목표 수익률에 최적화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위험 성향 등 까지 고려하게 되면 각 투자자에게 적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ELS 리서치 (<http://elsresearch.com>)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 하나로
편리하게 계약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구매 없이
MY카디프 APP에 접속!**



**MY카디프 APP
다운 받으세요!**



▶ 검색창에 카디프생명 또는 마이카디프 입력 후 검색
▶ 설치버튼을 눌러 설치 실행

글로벌 시장 상황 파악

이번 달 핫이슈 및 자산시장별 투자 전략 참고

STEP 01

나에게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성향별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STEP 02

펀드 관리

수익률 관리,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기능 활용

STEP 03

🔄 펀드 변경 안내

변경 유형



적립비율 변경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적립비율을 변경



투입비율 변경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적립비율+투입비율 변경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과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변경 방법



My Cardif

홈페이지 방문 : www.cardif.co.kr
APP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카디프 생명' 또는 '마이카디프' 검색



은행/보험사 방문

보험을 가입하신 은행 또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 후 펀드 변경 신청

기준일 「펀드 변경 요구일 +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 적용
*영업일 기준은 개별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 횟수 연 12회 이내 가능

수수료 없음(다만, 차후 약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 가능)



📌 변액보험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액보험 계약은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